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

제35권 16호(나해) 2015년 3월15일

[묵상]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벌써 사순 제 4주,

희생과 극기,
참회와 보속,
절제와 사랑의 삶,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느님은 벌을 허락하시면서도
죄인에 대한 사랑만은 극진하셨는데,

더 큰사랑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렇다.
나의 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권순봉 요안나
	(생)성낙호 요셉, 신덕례 테레사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변혜경 올리안나, 이용식 베드로, 권분남 콜롬바, 이필주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현시영요셉, 권순봉 요안나, 안영희 마리아, 황득수, 오진 베드로, 정기범 베드로, 강의진 뿌로파시오 (생)서성용 베드로, 이우성 요셉, 정철편 & 정클라라 & 정세라피나 & 정에릭, 오마우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Chronicles) 36,14-16.19-23

화답송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4-10

복음 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John) 3,14-21

영성체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제4장

은사의 식별

1. 식별 은사

하느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커다란 노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신자들 각자는“끊임 없이 회개하며‘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에페 6,12) 을 거슬러 싸움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세상에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투쟁을 하려면 하느님의 은총과 거짓의 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식별의 은사로써 영적 투쟁을 수행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영들을 식별하는 은사”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바로 이 은사의 도움으로 성령의 선물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식별 은사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과 투쟁할 의무가 있다. 2006년에 발간된 서울대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령쇄신운동의 참여자 상당수가 은사의 개인적 행사와 무분별한 남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은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령 쇄신운동이 식별의 은사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식별의 은사란 어떤 생각이나 활동 그리고 신기한 현상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적 가르침이다. 식별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는 오랜 영적 지도의 경험과 영적 식별의 지침을 통하여 얻어지기도 한다.

<◆계속>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3	151	149
봉헌	255	269	264
성체	291	106	309
파견	149	184	184

레타레(Laetare)

1. “바빌론 유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화답송은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른바 ‘모세의 구리뱀’을 통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 충실하며 살도록 이끌어 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역겨운 짓으로 주님을 크게 배신하며 살게 되었고, 결국 바빌론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생활 중에 ‘바빌론 강 기슭’은 ‘주님 체험의 기억을 통한 회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억과 회심’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키루스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셨습니다.

2. “죽음에서 구원으로”

가끔 10년이 넘도록 쉬던 교우들이 고백성사 도중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눈물은 자신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 다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총의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개가 “주님께 다시 의탁해 보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로써 조심스레 자신들의 희망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은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3. “누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올해 서품 된 홍성원 신부님은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를 서품 성구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의탁하며 사제 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니코데모도 늘 그와 같은 열망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갈망을 들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고, 마침내 ‘밤을 몰아내 버리는 빛’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니코데모와 같은 ‘참된 열망과 빛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4.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순 제4주일은 레타레(Laetare)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레타레’는 “즐거워 하여라,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는 라틴어 입당송의 첫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오늘 전례는 부활의 서광을 목전에 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빛을 향해’ 곳곳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뻐하여라, 이렇게 되는 백성! 즐거워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시편144,15)

◆정연정신부 / 절두산 순교성지주임

어떤 아름다움

누군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막도 오아시스도 아름다움도 내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막이 아름다운 건 거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저리에서 빙빙 돌지 않고 한 발 내디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다든 사막이든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자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十 사순시기 十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월,20,27일,4월 3일)

사순 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제외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18일(수),19일(목), 24일(화)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요셉회 모임안내

● 일시 : 오늘주일(15일) 낮미사 후 강당

◆ 사순 특강 II

강사 : 김체현 성우 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 성당)

● 주제 : 죄,변화, 행복

● 일시 : 3월17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 미사 후, 성전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식 크리스토퍼 (310-796-6960)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March 15: 5th grade

March 22: 6th grade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15일(주일) *토서2반 : 북어국(\$3)

* 주일학교 : 칠리덕 (3학년,킨더)

● 3월22일(주일) * 토남3반 : 짜장밥(\$3)

* 주일학교 :피자 (1학년)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2일(성 목요일)/3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구역외 / 전례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P.V.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토런스 남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기정 김옥보 김옥찬 김우용 김원호 김정엽 김정웅 김현숙 김형순 노혜숙 민기남 민순섬 박선희 박영식 박완철 박음전 박인식 방정복 배태임 식순영 송기철 엄영희 오명섭 오영섭 우일환 이귀분 이근태 이원형 이효세 장영우 정규숙 정정현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한장환 한창주 황인종 송마이클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기정 김옥보 김우용 김원호 김정엽 김현숙 노혜숙 민기남 민순섬 박선희 박음전 박인식 방정복 식순영 오영섭 이귀분 이효세 장영우 정규숙 정정현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한장환 한창주 황인종 송마이클
합계:\$4,120	합계 : \$1,960
주일미사 헌금 : \$2,761	리싸이클 : \$115.38
	광고비 : \$1,35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5일까지 등록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2015상반기(제28기) 한글(한국)학교 교사 연수

- 과정: 일반 연수 과정
- 장소: 은혜로한국 학교(431 Madrid Ave. Torrance)
- 기간: 2015.3.26.(목)~4.21.(화) 매주 화, 목
- 시간: 오후 7:00~9:00
- 참가자: 한국 학교 교사 및 한국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 과정: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백삼위 한국 학교
- 기간: 4월~5월 매주 금요일 (07:00~08:30)
- 신청마감: 3월 27일

◆ 백삼위 한국 학교 단어 경시 대회

- 일시: 4월 5일 일요일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4월5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3월22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김명제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미주 평의회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 갱신 미사

- 일시: 3월25일(수요일) 저녁 7시
- 준비물: 묵주, 성가책, 봉헌공책
- 장소: 성바실 천주교회 본당
- 637 S Kingsley Dr. LA, CA 90005

◆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3월17일: 성마태오성당
- 3월18일: 순교자성당
- 3월19일: 성 아그네스 성당, 성 프란치스코 성당
- 3월23일: 성 토마스 성당
- 3월24일: 성 바실 성당
- 3월27일: 성삼 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신현화 헬레나 991-4838 3/4(수) 오후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701-6343 3/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6(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21(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심재은 클레멘스 991-8558 3/14 (토) 오후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3/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당 625-3312 3/21(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3/13(금) 오전11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희연 루시아 818-6903 3/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박정희마리아 404-1607 3/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8 (일)오후 6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십자가의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522-2933 3/14(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십자가의길’로 대체
	4	이귀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377-6752 3/10(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회장단 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1시
-----	------

124위 시복 특집<22>한덕운 토마스 (1752~1802년)

... 저는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비록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어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충청도 홍주 출신인 한덕운 토마스는 1790년 10월에 윤지충 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에 윤지충이 체포되어 순교하였음에도 한덕운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입국 소식을 들은 그는 성사의 은총을 받고자 주신부를 만나려고 애썼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800년 10월, 한덕운은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 땅에 속한 의일리(현,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기도와 영적 독서에 열중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우들과 함께하는 영신 수련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럴 때면 그의 말은 언제나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듬해 초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교회와 교우들 소식이 궁금해진 한덕운은 옹기 장사꾼으로 변장한 뒤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청파동을 지났던 한덕운은 거적으로 덮여 있는 홍낙민 루카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고 비통한 마음이 든 그는 시신에 애도를 표한 후, 부친과 함께 순교하지 못한 홍낙민의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를 엄히 질책했습니다. 홍재영은 그 뒤 다시 신앙을 되찾아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 1839년에 순교했습니다.

한덕운은 서소문 밖에서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와 같은 박해 상황에서 신자들의 시신을 돌보아 준다는 것은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덕운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동료를 밀고하지 않았으며 어떤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운은 사형 판결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수형으로 순교하던 날, 형장의 한덕운은 자기 손으로 직접 참수 목침을 가져다 턱 밑에 피고는 온화한 시선으로 망나니를 바라보며 “단칼에 내 목을 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망나니가 헛갈질을 하는 바람에 한덕운의 머리는 세번째 칼을 받고서

야 땅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1802년 1월 30일로 당시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위임

사도들은 누구일까?

[교리상식]

☞보통 사도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과건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과건하셨습니다.

◆예비신자궁금증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당신이 하느님에게 진정으로 회개를 청한다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햇별 한 줌]

어느 아버지의 상속 재산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한 시름 놓자 그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 빚을 좀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아버지의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가격을 매기듯 큰 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천 5백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문병 한번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전화 한번 없는 자식들을 다시 모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오지 않고 4남매만 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 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줄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상속은 끝이다. 정리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 30억 원은 사회 단체에 기부한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천 5백만 원, 딸 5천만 원... 자식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굿 뉴스